

■■■美味しんぼ■■■에 나타난 일본과 미국과의

문화 마찰에 관한 일고찰

— 「激闘鯨合戦」을 중심으로 —*

장 용 걸**

目 次

1. 들어가기
 2. 문화제국주의 침략으로서의 반포경
 3. 문화상대주의의 도구화
 4. 일본적 용기의 승리
 5. 맺음말
-

1. 들어가기

일본의 구루메(グルメ) 만화의 하나인 「오이신보(美味しんぼ)」는 1983년에 만화가인 가리야 테쓰(雁屋哲)가 쓴 작품이다. 이 만화는 도서출판 대원에서 ■■■맛의 달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오이신보」는 도우자이신문사(東西新聞社)의 문화부에 근무하고 있는 야마오카 시로(山岡士郎)라고 하는 남자 기자와 구리타 유코(栗田ゆう子)라고 하는 여자 기자가 한 조가 되어 야마오카 시로의 아버지이자 일본에서 저명한 도예가이자 미식가이면서 테이토신문사(帝都新聞社)의 지원을 받는 우메하라 유잔(梅原雄山)과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경쟁을 벌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만화이다. 작가인 가리야 테쓰는 음식에 대해 대단히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 야마오카 시로와 구리타 유코가 만들어 내는 요리는 「궁극(究極)의 요리」라고 명명하고 우메하라 유잔이 만들어 내는 요리를 「지고(至高)의 요리」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는 자신들의 요리가 가장 맛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리에 관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애를 쓰는 것이다. 현재에도 계속 출판되고 있는데 약 1억원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이다.

그런데 이 만화에 대한 연구는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인터넷상에서 일반 독자들이 취미로써 연구하는 것은 많이 있었다. 물론 그 내용들은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특히 요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등이 주류라고 하겠다.¹⁾ 마크 실링도 일본의 「

* 본 연구는 200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계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일어교육과 일본 문화 역사

1) home8.highway.ne.jp/galzo/manga/oisinbo01.htm, www.ann.hi-ho.ne.jp/matsuchiro/oisinbo/,

구루메」 문화를 소개하면서 「오이신보」를 음식을 테마로 하는 오락적 요소가 짙은 만화로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²⁾

그렇지만 이 만화는 단순히 오락성을 겸비하면서 일본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에는 이데올로기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음식의 소개도 일본 음식의 소개가 아닌 뛰어난 일본 음식의 찬양이고 그것이 「궁극(究極)의 요리」와 「지고(至高)의 요리」로서 대변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궁극(究極)의 요리」와 「지고(至高)의 요리」중 어느 것이 더 맛있고 최고의 요리인가 하는 것을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도달점은 일본 요리가 가장 맛있고 최고의 요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요리도 일본인이 만들 때 가장 이상적인 요리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일본 요리이건 외국 요리이건 그 모든 것이 일본인의 손에서 환상적으로 재탄생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오이신보」 작품 전체가 아니고 「激鬪鯨合戦」만을 분석 하고자 하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그런데 왜 이 요리 만화가 인기가 있는 것일까 하면 일본인의 유명한 식도락적인 취미와 관계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1980년대에 들어 와 일본은 경제적으로 대단한 호황기를 누리게 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먹는 것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동경에는 여러 나라들의 음식점이 많이 생기고 시민들은 태국 요리, 버마 요리, 인도 요리,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등 이국적인 요리를 맛보려고 너도 나도 음식점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또한 텔레비전에서도 그것에 발맞추어 요리 프로그램 및 각 지역의 특산물 소개 - 요즘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방송 프로임 - 등에 관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³⁾ 이처럼 일본의 「구루메」붐이 일본의 경제적 발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적인 호황은 곧 「구루메」호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호황은 정반대의 결과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적 호황은 외국에 일본의 물건을 많이 팔아서 얻어진 이익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수출을 많이 하여 얻어진 결과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 보면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가 생기고 수입을 많이 한 나라가 수출을 수입만큼 하지 못하면 무역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제적 논리의 희생이 된 나라들 중에 서구 유럽을 비롯한 미국이 포함된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적자에 고통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고통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었는데 하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일본의 문화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문화시스템을 이해하기보다는 우선 일본의 불공정한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여 일본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마찰의 배경에는 문화적인 마찰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리야 데쓰는 「오이신보」의 제13권 「激鬪鯨合戦」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激鬪鯨合戦」에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식문화의 하나인 「고래」를 잡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반포경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다분히 내셔널리즘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려진 만화라고 할 수가 있겠다.

www.asahi-net.or.jp/~AN4S-OKD/private/bun/man009.htm, www5e.biglobe.ne.jp/~oisinbo/index.html.htm 등을 들 수가 있다.

2) 마크 실링, 김장호 역(1999) ■■■일본대중문화 여기까지 알면 된다■■■, 초록배 매직스, p.54

3) 위의 책, pp.53~54

4) 青木保, 장용걸 역(2002) ■■■문화의 충돌과 이문화 공존■■■, 경남대학교 출판부, pp.9~54를 참조할 것.

실제 1982년 제34회 국제포경위원회(IWC)총회에서 '3년 후의 상업포경 전면금지안(이하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제안하여 가결되었다. 물론 모라토리움이 가결되었다고 즉각 포경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었다. 의의를 제기하면 모라토리움 결의에서 제외될 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PM법이 만들어진다. PM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포경조약의 규제의 효과를 말살시킨 나라에 대해 미국 200해리 내의 어획 할당을 처음 해에는 50%를 삭감시키고 이듬해부터는 완전 제로로 한다고 하는 법이다. 일본도 처음에는 의의를 제기하였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PM법에 의해서 포경업에서 전면 철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⁵⁾

이처럼 1980년대는 일본의 경제적인 발전과 그에 따른 서구 유럽 및 미국과의 충돌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반포경주의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물론 이러한 반포경주의에 대한 반발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포경국가인 노르웨이 한국 등에서도 일어났지만 현재는 반포경이 세력을 확대시키면서 보편화되고 있다. 이것은 고래를 식용으로 하는 문화가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국제화의 문화적 획일화에 의해서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실제 한국에서도 고래 고기는 그렇게 손쉽게 먹을 수가 없을 것이다. 값이 비싸거나 먹는다고 하더라도 돌고래의 고기를 먹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래잡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과의 마찰을 대중의 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는 대중문화의 하나인 만화가 국제화에 따른 문화적인 침략과 자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내셔널리즘과의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반포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화제국주의의 침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둘째로는 그러한 반포경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상대주의를 이용한 문화우월성을 명확히 하고 셋째로 자국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일본의 대중문화를 통하여 일본의 국제화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 문화제국주의⁶⁾ 침략으로서의 반포경

미국의 집요한 반포경의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포경은 악이고 반포경은 선이라고 하는 자문화의 가치 기준으로 이 문화를 억압하려고 하는 미국의 자민족중심주의의 강렬함」⁷⁾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에만 급급하여 성급하게 포경업에서 철수한 일본의 실수, 그리고 미국 내의 정치적인 문제로서 수많은 자연보호 동물보호 단체는 의원들에게 귀중한 표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⁸⁾들을 들 수가 있다.

5) 浜口尙(1996) ■■■捕鯨の文化人類學■■■, 新風舎, pp.9~12

6) 존 톰린슨은 문화제국주의를 설명하면서 문제화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문화 특히 미국의 문화가 제삼세계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침투하여 지배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언설에 대해서 네가지로 분류하여 비판적으로 개관하였는데 첫째는 미디어제국주의로서의 문화제국주의, 둘째는 국가 언서로서의 문화제국주의, 셋째 글로벌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제국주의, 넷째는 근대성 비판으로서의 문화제국주의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여러 종류의 권력, 통치, 규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ジョン・トムリンソン(1993) ■■■文化帝國主義■■■, 青土社, pp.48~70

7) 浜口尙(1996), 앞의 책, p.13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인 배경뿐만 아니고 서양이 가지고 있는 일본 때리기의 분위기에 편승한 인종주의적 편견과 자본주의적인 욕심도 반포경의 이유로서 들고 있다. 「오이신보」에는 한국인, 중국인, 프랑스인, 미국인 등 다양한 외국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등장하는 외국인 중에 제프(ジェフ)라고 하는 미국인이 있다. 이 미국인은 일본의 요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한 일본 요리를 추구하려고 식칼 하나 들고 L.A에서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이다. 비록 외국인이지만 일본 문화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激闘鯨合戦」에서 제프는 미국의 반포경주의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처음에 제프는 일본인이 고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반포경을 주장하는 단체와 함께 고래 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 들어 와 반포경을 주장한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우연히 아마오카 일행이 고래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마오카에게 「아마오카! 당신이 고래 고기를 먹다니!? 당신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잘 못 보았소..」⁹⁾라고 화를 낸다. 또 아마오카가 제프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교토의 한 요정(料亭)에 데리고 가는데 그는 요정에 있는 일본 정원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정도로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 어째서 고래를 죽이는 것 같은 야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지 일본문화를 사랑하는 자로서 그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¹⁰⁾라고 아마오카에게 말한다. 그렇게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한 그가 고래 고기가 일본의 식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 문화와 고래 고기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서구 중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즉 일본인에게 있어서 고래 고기는 대단히 중요한 식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제프가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인의 시각이 아니고 서양인 자신의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장면에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아마오카가 제프에게 숨기고 고래 고기를 먹이는데 제프는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고래 고기인 줄 모르고 너무나 맛있게 먹는다. 먹는 도중에 아마오카가 무슨 고기인지를 묻자 그때서야 눈치를 채고 아마오카에게 화를 낸다. 그 때 아마오카가 제프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제프 고래 고기를 처음 먹는 사람이 어떻게 고래 고기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가!? 제프가 태어나 자란 아메리카의 식문화 속에 고래 고기가 들어 가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자기들의 식문화에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먹기 이전부터 거절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타국의 식문화를 자신들의 식문화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여 야만이라고 멋대로 부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야만적인 행위가 아닌가..」¹¹⁾

이 장면에서는 제프의 반포경은 서구의 자민족중심주의에 빠져 일본의 식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미 자민족중심주의적인 이문화 이해에 관한 폐단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서구의 식민지주의가 이문화를 이해하지 않고 자민족중심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¹²⁾ 이 만화에서도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반포경은 미국의 자

8) 土井全二郎(平成4) ■■■最近捕鯨白書■■■, 丸善, pp.31~32

9) 雁屋哲작, 花咲アキラ그림 (1994) ■■■美味しんぼ■■■, 小學館, p.17

10) 위의 책, p.31

11) 위의 책, pp.36~37

12) 도도로프는 컬럼버스가 인디어를 보는 시각이 「하나의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타자에게 투영하여 동화주의에 귀착하고 다른 하나는 전혀 타자적인 인간의 본질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

민족 자문화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서구가 자신들의 가치관을 타자에게 투영시켜 동일시시키는 자기중심적 문화 침략이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단순히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문화를 말살시키는 경우는 근대 식민지주의에서 대단히 많이 행해진 행위들이다. 제프가 고래의 마릿수에 대해서 묻기 위해 반포경운동 단체인 고래 십자군(鯨十字軍)의 부회장을 만난다. 만난 자리에서 반포경단체인 고래 십자군의 왓트(ワット) 부회장은 제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

「고래의 마릿수가 증가하든 증가하지 않든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니네! 자 제프 우리들은 환경보호단체이다. 세계적 규모로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고 있다. 활동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를 주장해도 기부금은 모이질 않아. 지배계급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고래를 앞에 내세워 하면 누구나가 흔쾌히 돈을 낸다. 대부호의 미망인 학교의 학생들 대기업 모두 기분 좋게 잘 돈을 낸다. 고래는 돈을 모으기 위해 내세운 간판인 것이다.」¹³⁾

이것은 60년대 후반 이후 「고래는 구미 사회에 있어서 ■■■인간들의 친구■■■ ■■■환경 보호의 상징 ■■■」¹⁴⁾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환경보호주의자들에게 원자력보다는 고래를 앞세워 환경보호를 주장한다면 많은 서구인들이 돈을 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환경 보호보다는 돈을 굶어모으기 위한 책략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래의 마릿수가 늘든지 하는 것은 어찌해도 상관없다. 고래를 지키자 하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크게 호소할 수가 있다.」¹⁵⁾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 미국이 유럽의 자본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19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세력으로 신장하는 것¹⁶⁾을 생각하면 고래를 환경 보호의 상징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반포경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감정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앞에서 제프가 고래 고기를 먹는 행위가 「야만적 행위」라고 다분히 인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포경주의가 인종적 차별 혹은 인종적인 편견과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예를 들면 제프는 「고래를 죽이다니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고래는 지켜주지 않으면 안됩니다.」¹⁷⁾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언행들은 야만과 문명의 이분법으로서 고래를 먹는 것은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는 고래를 먹지 않는 것이 문명이라고 하는 의식이 감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 감추어진 의식이야말로 서구인이 바라 본 이민족, 이문화에 대한 의식 즉 비서구인을 미개 혹은 야만으로 인식한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제프가 야마오카에게 「고래를 죽이는 것도 닭을 죽이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것을 다릅니다. 고래는 인간 다음으로 영리한 동물이고, 닭이나 소

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이 즉 우월과 열등의 말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기중심주의적인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ツヴェタン・トドロフ, 菊地良夫 외 2명 역 (1996) ■■■他社の記号學■■■, 法政大學出版部, pp.58-59

13) 雁屋哲 작, 花咲アキラ그림(1994), 앞의 책, pp.60~61

14) 小松正之(2002) ■■■クジラと日本人■■■ 青春出版社, p.32

15) 雁屋哲 작, 花咲アキラ그림(1994), 앞의 책, p.61

16) 이것을 「양키 웨일즈의 탄생」이라고 부르고 있다. 森田勝昭(1994) ■■■鯨と捕鯨の文化史■■■, 名古屋大學出版會, p.51

17) 雁屋哲 작, 花咲アキラ그림(1994), 앞의 책, p.28

와는 다릅니다!!」¹⁸⁾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야마오카가 그것은 인종 차별이라고 반박한다. 「영리하다든가 영리하지 않다든가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그런 인종편견이라든가 차별이라든가 하고 똑같은 생각이 아닌가! 그래 어떠한 이유든 간에 생물을 놓고 죽여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차별로 연결되는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죽여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착각을 하였을 때 인간은 더 한층 잔혹하게 된다. 그 생각이야말로 인종편견이 되는 것이다.」¹⁹⁾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제프는 고래를 먹는 것을 단순히 야만으로 치부하였지만 고래 십자군(鯨十字軍)의 왓트 부회장은 인종차별이 더욱더 구체화하고 있다. 그는 제프에게 반포경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세계에서 포경국이라고 한다면 일본을 말한다 …………… 따라서 반포경을 주장하는 것은 동시에 일본을 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포경을 앞세워 일본인은 야만인이다. 일본인은 잔혹하다. 일본인은 더럽다고 선동하면 아메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대단히 먹혀든다. 그러면 더욱더 많은 원조가 모인다고 하는 것이야.」²⁰⁾

즉 반포경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판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일본이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내면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그 반대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일본의 무역 정책은 「불공정(unfair)」하다고 전제하면서, 일본 때리기(日本叩き)가 극에 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콤(COCOM) 사건만 보더라도 미국의 의원들이 도시바 제품인 라디오를 해머로 때려 부수거나 교수형에 처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다.²¹⁾ 반포경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는 것은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 일본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부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에 제프가 「그것은 일본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견을 선동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²²⁾라고 되묻자 부회장은 「뭐 나쁜 것 있어 황색 원숭이들의 손에서 고래를 지켜주는 것이다.」²³⁾라고 답한다. 다른 사람들도 거들어 「무역을 보더라도 잭(ジャック)은 더럽고 치사한 짓 만하여 흑자를 늘여가고 있어!」²⁴⁾ 혹은 「저 황색 원숭이들을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조금 아프게 해줄 뿐이야!」²⁵⁾라고 말한다.

이처럼 제프와 왓트 부회장과 대화 내용은 결국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반포경주의라고 하는 것은 미개와 문명의 이분법적 자민족중심주의의 사고가 지배하는 서구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야욕을 위해서 타문화는 없어져도 좋다고 하는 것이고 미개하고 백인이 아닌 황인종들의 문화는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하는 서구 우월주의의 횡포라고 하는 것이

18) 위의 책, p.44

19) 위의 책, p.45

20) 위의 책, pp.63~64

21) COCOM이라고 하는 것은 냉전 시대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s)의 약자이다. 현재는 통상 병기 관련의 수출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협정 즉 신 COCOM = Wassenaar Arrangement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사건은 도시바 사건을 말하는데 도시바 기업이 대형 공작 기계를 불법으로 소련에 유출하여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다. 青木保, 장용걸 역(2002), 앞의 책, p.13

22) 雁屋哲 작, 花咲アキラ 그림(1994), 앞의 책, p.64

23) 위의 책

24) 위의 책

25) 위의 책

다. 이러한 서구의 문화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가리아는 문화상대주의의 관점과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기본으로 하여 그려내고 있다.

3. 문화상대주의의 도구화

문화인류학에서도 그러해 왔듯이 인류는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인식해 왔다. 즉 세계의 각지에는 고급문화에서 저급문화까지 여러 단계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문화진화론이나 문화전파론이라는 입장으로 대변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화관이야말로 서구 자신들의 자문화에 대한 보편주의적 강박관념이 서구 이외의 문화를 미개 혹은 뒤떨어진 것 비문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비로서 문화를 공평하게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생각의 주역들이 루스 베네딕트(Ruthe Fulton Benedict)와 멜 빌 허스코비츠(Melville J.Herskovits)이다. 이처럼 문화상대주의는 미국인류학의 내부에서 나타난 것으로서 다른 문화를 다른 문화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 아오키 다모쓰는 7개 정도로 집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1. 서구문화중심주의에 대한 대항적인 개념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주장한다. 2. 문화는 소규모 단위의 것이라도 자율적으로 독자의 가치를 가진다. 3. 인간의 행동이나 사물의 가치는 그것이 속하는 문화의 문맥(context)에 따라서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4.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평등과 호혜주의에 입각한 접근 방법이다. 5. 문화와 문화의 사이에는 격차가 없고 인종이나 민족 간에도 능력이나 가치에 대한 우열의 차이는 없다. 6. 문화와 인간의 가치 판단에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7. 무엇보다도 이문화·타자에 대해서 관용적이어야 한다.」²⁶⁾

결국 문화상대주의는 서구 문화 중심에서 이탈한 문화의 다양성과 평등성, 독자성을 인정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이문화와 이민족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과 관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리아 테쓰는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의 개념에 해박한지 어떤지를 모르지만 그는 미국이 이처럼 반포경주의를 들고 나와 일본을 때리는 것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이해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본이 반포경파에 의해 곤란한 처지에 빠진 원인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문화를 외국에게 대해서 이해해 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에 있다. 일본인이라고 하는 잘 알지 못하는 인종이 무역흑자는 늘리고 외국의 자동차 산업이나 전자공업을 파산 시켜버리는 것을 하고 있으니 외국으로부터 반감을 사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²⁷⁾

구리타도 옆에서 거들어 「정말요…… 하여튼 외국에게 좀더 일본에 대해서 알아주도록 하지 않으면 포경만이 아니고 모든 마찰이 해결되지 않겠군요 ……」²⁸⁾라고 말한다.

26) 青木保, 장용걸 역(2002), pp.27~28

27) 雁屋哲 작, 花咲アキラ 그림(1994), 앞의 책, p.55

28) 위의 책

그런데 가리야는 문화상대주의를 동원하기 이전에 먼저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도 일본인의 손에 의해 일본 문화의 우수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서양인 즉 미국인에 의해서 일본 문화의 우수성이 강조되는데 그 역할을 잘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제프인 것이다. 제프는 교토의 한 요정의 정원을 보면서 일본 정원에 대해서 감탄과 찬사를 연발한다.

「야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군요. 언뜻, 석가산, 석등, 정원석 정원수 …… 제각각이 멋있는 미의식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니 …… . 이끼가 초록색 읍단과 같다. 지금의 소리는 대나무 물소리이군요. 정숙한 가운데 아주 맑은 소리가 울린다……. 야 정말 좋구나. 소리까지도 연출을 하는구나. 이정도로 훌륭한 문화를 가진 일본인이 어째서 고래를 죽이는 그런 야만적인 짓을 하는지……」²⁹⁾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제프의 일본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일본인보다 일본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을까.」³⁰⁾라는 말로 칭찬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고래 십자군의 왓트 부회장도 일본의 분라쿠(文樂)를 보면서 「정말 멋있는 기술이군요. 인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인간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인형연극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가벼운 것이지만 분라쿠는 깊은 감동을 주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일본의 전통문화는 멋있습니다.」³¹⁾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의 서구가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서구 유럽이나 미국을 능가하는 발전을 이룩하게 되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경우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일본의 문화적인 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저팬 애즈 넘버원■■■(Ezra F. Vogel, ■■■Japan as number one : lessons for America■■■)를 들 수가 있다. 따라서 가리야는 단순히 일본 문화를 이해해 달라고 호소를 하지는 않는다. 일본 문화는 이해되어야 하는 훌륭하고 뛰어난 문화이다. 더욱이 서양인 스스로도 일본 문화의 뛰어난 것에 감탄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식문화의 하나인 고래 고기를 먹는 것도 훌륭하고 뛰어난 문화이고 절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프가 일본의 정원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자 「오이신보」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의 하나로서 교 교쿠(京極)가 제프에게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은 일본 문화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제프군 일본 문화에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 하겠는데 고래를 먹는 것도 일본 문화의 하나야. 고래를 먹는 기술을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것은 일석일조에 된 것은 아니야. 몇 백년도 아니 몇 천년 이상 길려서 우리들의 선조가 지혜를 짜내어 여기까지 온 것이야. 당신들 서양인은 소나 돼지나 양의 고기는 다양하게 먹는다. 조리법도 훌륭하고 좋은 식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그것도 역시 서양의 긴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온 결과이겠지. 한편 우리 일본인은 긴 세월 소나 돼지 등을 먹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일본인은 서양인이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야만이라고 하였다 …… 그것에 대하여 제프군은 어떻게 생각하는가.」³²⁾

소나 돼지 그리고 양고기를 먹는 것이 서양 문화라고 한다면 고래 고기를 먹는 것 또한 일본 문화인 것이다. 서양인이 고래를 먹는다고 일본인을 야만이라고 부른다면 일본 역시 서양인이 짐승을

29) 위의 책, pp.31 ~32

30) 위의 책, 32

31) 위의 책, p.94

32) 위의 책, pp.37 ~38

먹기에 야만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와 돼지와 고래와의 차이는 종의 차이이지 식육의 대상으로는 동일하다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한다면 서양인이 돼지나 소를 먹는 것도 문화로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인이 고래를 먹는 것도 문화로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식문화로서 서로의 문화적인 독자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은 일본의 전통적인 식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상대주의적인 생각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도 일본적인 것을 언급하고 있다. 아마오카와 제프가 아침에 닭을 잡으면서 논쟁을 벌인다. 그것은 먹기 위해 동물을 죽이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오카가 일본의 불교에서 말하는 「업(業)」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래, 나는 대단히 죄 많은 인간이야 나뿐만이 아니야, 제프도 구리타군도 교코쿠씨도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은 전부 죄 많은 존재인 것이다. 어떤 살아 있는 생물도 정말 작은 길가의 잡초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살고 싶다고 하는 강한 집념은 식물도 동물도 변함은 없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하루도 살아가지 못하는 죄 많은 존재인 것이야. 채식주의자라고 결코 무죄는 될 수 없어. 소를 죽여도 좋지만 고래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있는가! 양쪽 다 유죄이다!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면 살아 갈 수 없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짙어진 죄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죄일지라도 인간이 동물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운명적인 것을 거역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일본인과 서양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는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의 문장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에서는 혼은 정신이나 이성과 동일한 의미로서 취급되어 인간 만에 한정되는 것이다. 인간만이 구제되고 또 과멸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성을 부여받은 인간은 동물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동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동물은 서구인이 인정하는 이용성이나 지능의 가능성 및 일반적 매력 등에 의해서 다른 취급을 받아 왔다. (중략) 일본인은 이 세상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상호 의존하고 있으며 양자의 사이에는 호혜의 관계가 있다고 보이어지고 있다. 생명을 빼앗는 것은 동시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감정의 깊이는 보상과 감사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시간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다.」³³⁾

서구인은 동물을 인간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취급을 하지만 일본인은 동물과 인간을 별개의 보지 않고 있으며 생명을 빼앗는 것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상보적인 관계로서 설정하고 있는데 아마오카가 말한 불교적인 업의 의미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일본인이 고래를 죽이는 것은 일본의 불교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가 상보적이고 호혜적이라는 일본적 특유의 사고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 문화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서구인의 논리에서만 그것이 주장되고 시행된다고

33) ミルトン・M・R・フリーマン 편저, 高橋一 외 역(1994) ■■■くじらの文化人類學 — 日本の小型沿岸捕鯨■■■, 海鳴社, pp.141-143

한다면 일본의 문화가 이 땅에서 사라져버린다는 점을 가리야는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고래 십자군 부회장을 초대하여 분라쿠를 보여주는 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가토마루(角丸)부총리의 주최로 분라쿠가 열리게 되고 그곳에는 아마오카와 구리타 그리고 고래 십자군의 왓트 부회장도 초대되었다. 상연이 끝난 후 왓트 부회장은 정말 멋있고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다른 외국인들도 감탄을 하지 인형 조종자(人形遣い)는 「그렇지만 이 분라쿠도 앞으로 길지 못합니다. 이거 보지요. 인형의 머리를 지지해주고 움직이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 이 재료를 이제 구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 이것은 세미 고래의 수염이기 때문입니다. 세미 고래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가에. 고래의 수염으로 하지 않으면 인형의 움직임이 부드럽게 되지 않아요. 앞으로 고래의 수염을 구할 수가 없다면 전통극인 분라쿠도 상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³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왓트 부회장은 「그런 분라쿠라면 그만두는 것이 좋아! 단지 인형극에 불과하지 않은가. 고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인형 연극같은 것은 없애는 것이 좋다. 무엇이 일본 문화냐 세미 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특히 수가 적다. 그것을 잡다니 말도 안 된다.」³⁵⁾라고 대꾸한다.

이상에서 가리야는 미국의 반포경주의에 대항하는 것은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일본의 식문화인 고래 고기를 먹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만일 서구의 자문화중심주의의 횡포에 패배하게 되면 분라쿠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그러한 횡포에 대항하여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4. 일본적 용기의 승리

가리야는 일본인의 중요한 식문화 중의 하나인 고래를 외국인들이 못 잡게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는 일본인에 대하여 한탄을 하고 있다. 아마오카와 같이 이 만화의 주인공인 우메하라가 격노하는 장면에서 잘 알 수가 있다.

「정말 한탄스러운 일이다. 일본의 식문화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해 온 고래가 독선적이고 제멋대로인 외국인 들이 역지를 부리는 바람에 사라지려고 하는데 장본인인 일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 하고 있다니 … . 일본이 외국으로부터 포경금지를 강제적으로 당하여 고래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뒤집기 위한 노력을 너는 하였던 말인가. 고래 고기 요릿집에게 있어서 고래는 생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왜 아무런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³⁶⁾

그러나 가리야가 하고 싶은 말은 단순히 일본인 스스로에 대한 한탄과 공격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꿈작 못하는 일본의 정치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미국을 동원하여 일본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고래 십자군의 서양인들의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4) 雁屋哲 작, 花咲アキラ 그림(1994), 앞의 책, pp.94~96

35) 위의 책, p.96

36) 위의 책, pp.18~20

「이번에 일본에 온 것은 조사 포경을 그만두지 않으면 아메리카 정부가 일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일본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들 환경보호단체는 아메리카에서는 커다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의회에 압력을 가하여 일본을 제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원들도 기쁘게 우리들의 말을 들어 줄 것이야. 지금 일본을 때린다고 하면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고 다음 선거에서는 손쉽게 당선하고 대통령 후보의 길로도 들어 설 수 있다.」³⁷⁾

서양인 자신들은 미국이 일본에게 경고나 제재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의 정치가들 스스로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가리야는 생각하는 것이다. 아마오카가 기자인 선배를 만나는 장면에서 기사는 「일본 정부는 지금 외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저자세이기 때문에 특히 아메리카의 비위를 맞추는데 필사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포경 따위는 잘라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³⁸⁾라고 말하면서 아마오카에게 가토마루 부총리를 만나 보라고 권유하는 장면에서도 잘 알 수가 있겠다.

또한 아마오카와 구리타가 가토마루 부총리를 만나 반포경에 대해 비판을 하자 그것에 답을 하는 내용도 역시 일본 정치가들의 허약함을 지적하고 있다.

「무언가 성가신 일이 될 것 같네 그러나 음 지금 고래를 가지고 아메리카를 자극하는 것은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아메리카도 유럽도 일본은 불공평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아주 더러운 나라라고 비난하고 있다. 저편 팻싱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에 포경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하면 더욱더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된다.」³⁹⁾

그리고 가리야는 이것은 단순히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아마오카가 가토마루의 대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항변하고 있다.

「자동차나 반도체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한 대가로 포경을 포기한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대를 위해 소는 희생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어느 정치가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도 소도 다 살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대정치가 이겠죠!? 가토마루 부총리 외국으로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를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계산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한 국익이 될까요? 그럼 일본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도 받아들인다면 외국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확실히 포경을 산업으로서만 생각한다면 자동차나 반도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고래를 먹는다고 하는 일본의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식문화를 지킬 수 있는가 어떤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일본인의 잘못된 문제입니다.」⁴⁰⁾

즉 경제적인 이익만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물건만을 팔기 위해 그들에게 아부만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일본을 업신여길 것이고 그것이 반포경주의와 같은 압력으로 행사된다고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일본인에게 경제적 동물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암암리에 의식하면서 특히 미국에게 꿈쩍 못하는 일본의 정치적 허약함과 자기 비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고래 고기는 일본인의 아이덴티티이기에

37) 위의 책, pp.67 ~68
 38) 위의 책, p.72
 39) 위의 책, pp.76 ~78
 40) 위의 책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가리야는 일본인의 용기를 전통적인 고래잡이들의 고래를 잡는 모습에서 암시 하고 있다. 만화의 첫 부분에 니콜(C·W·ニコル)이 쓴 소설 「勇魚(いさな)」라고 하는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을 주인공들이 구경을 하고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와 영화의 장면들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고래잡이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무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감탄하는 것이다.⁴¹⁾

고래를 칼로 잡는 영화를 만화의 첫 부분에 낸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고래는 예부터 일본인들의 생활의 일부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거대한 고래를 잡는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일본의 전통적인 무사들의 용기와 같다고 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리야는 두 가지 상상을 하게 된다. 하나는 가토마루 부총리가 고래 십자군 부회장 왓트에게 반포경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왓트씨 어쩐지 당신의 정체가 드러난 것 같다. 나는 그 이후부터 포경에 대해서 새로 공부하였다. 그 결과 반포경 그룹이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반포경 환경보호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빼뿔어진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 할 수밖에 없다. 포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힘을 늘리려는 음모이다. 어쨌건 왓트씨 나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였다. 아메리카의 재제를 두려워하여 당신들의 거짓말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포경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조상을 배반하는 것이고 우리의 긍지와 자존심을 버리고 자손들에게 불행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정치가로서 나는 당신에게 반성을 요구하고 세계인으로서 이성적으로 행동하도록 권합니다. 이 지구는 당신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⁴²⁾

다른 하나는 그렇게 완강하게 고래 고기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반대하던 제프가 「나는 고래요리에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식당에서 고래 고기를 주 메뉴로 할 것입니다。」라고 기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제프가 고래 십자군의 음모와 정체를 이해하고 변신을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내면에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희망이면서 사실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지금까지 「激闘鯨合戦」의 편을 통해서 포경업을 둘러싼 일본과 미국과의 문화적 마찰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으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겠다.

첫째 미국이 반포경주의를 일본에게 압력으로서 행사하는 것은 문화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1980 년대의 일본과 미국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무역마찰에 따른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인종 편견이나 인종 차별이라는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민족중심주의와 결합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거나 용납하려는 자세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

41) 위의 책, pp.4~6

42) 위의 책, pp.99~100

의 의미 속에 강제로 집어넣어 타문화를 변화시키거나 말살시켜버리는 문화적 침략인 것이다. 따라서 고래 고기를 먹는 민족은 야만 민족이고 먹지 않는 민족은 문명이라는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다.

둘째는 이러한 서구의 제국주의적 만행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가 만든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을 도구화하여 일본의 문화를 서구인들에게 이해해 받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고래 고기를 먹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본 문화에 대한 경외와 찬사 등을 통해서 일본 문화의 우수성과 우월성을 확인하여 문화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본 문화의 하나인 고래 고기를 먹는 식문화도 대단히 훌륭한 문화이고 고래는 단순히 식문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전통문화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훌륭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포경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적인 압력과 지배 속에서 벗어나서 일본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Noと言える日本-新日米關係の方적인 고래잡이처럼 용기를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치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몸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오이신보」라고 하는 만화는 단순히 오락성이 짙은 구루메에 관한 만화가 아니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반포경주의에 나타난 서구의 자민족중심주의의 획책과 위협성, 그리고 일그러진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끌려만 가는 미일관계가 아니고, 서양인도 일본 문화의 뛰어난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본의 문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논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을 애청하고 있다. 허지만 그러한 대중문화가 단순히 오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이해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마크 실링, 김장호 역(1999) ■■■일본대중문화 여기까지 알면 된다■■■ 초록배 매직스, p.54, pp.53~54
- 青木保, 장용결 역(2002) ■■■문화의 충돌과 이문화 공존■■■, 경남대학교 출판부, pp.9~54, p.13, pp.27~28
- 浜口尚(1996) ■■■捕鯨の文化人類學■■■, 新風舎, pp.9~12, p.13
- ジョン・トムリンソン(1993) ■■■文化帝國主義■■■, 青土社, pp.48~70
- 土井全二郎(1992)■■■ 最近捕鯨白書■■■, 丸善, pp.31-32
- 雁屋哲작, 花咲アキラ그림(1994) ■■■美味しんぼ■■■, 小學館, p.17, p.31, pp.36~37, pp.60~61, p.61, p.28, p.44, p.45, pp.63-64, p.64, p.55, pp.31~32, p.32, p.94, pp.37~38, pp.94~96, p.96, p.18~20, pp.67~68, p.72, pp.76~78, pp.4~6, pp.99~100
- ツヴェタン・トドロフ, 菊地良夫 외 2명 역(1996)■■■ 他社の記号學■■■ 法政大學出版部 pp.58~59
- 小松正之(2002) ■■■クジラと日本人■■■ 青春出版社, p.32
- 森田勝昭(1994) ■■■鯨と捕鯨の文化史■■■, 名古屋大學出版會, p.51
- ミルトン・M・R・フリーマン편저, 高橋一 외 역(1994) ■■■くじらの文化人類學 — 日本の小型沿岸捕鯨■■■ 海

鳴社, pp.141 ~143

- home8.highway.ne.jp/galzo/manga/oisinbo01.htm,
- www.ann.hi-ho.ne.jp/matsuchiro/oisinbo
(www.asahi-net.or.jp/~AN4S-OKD/priv)
- www5e.biglobe.ne.jp/~oisinbo/index.html.htm

要 旨

日本の有名なグルメ漫画として知られている■■美味しんぼ■■の「激闘鯨合戦」の編を通して捕鯨業をめぐっての日本とアメリカとの文化的な摩擦をいかなるものとして捉えているかについて分析を行ったのである。それを次のようにまとめる。

一つ、アメリカが反捕鯨主義を日本に対して圧力としてかけよとする行為は文化帝國主義的な侵略であろう。1980年代の日本とアメリカとの間に起った貿易摩擦によるアメリカの日本に対する悪感情が高まった。このような背景には西歐の優越感が潜まれ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だろう。したがって、反捕鯨主義は単に捕鯨を反対するのではなく、西歐の帝國主義の産物である自民族中心主義の視覚をもって人種差別および文明と野蛮という二分法による異文化と異民族をみ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二つ、このような反捕鯨主義の裏に隠されている西歐の優越主義から脱皮するためには文化相對主義の考え方を持って、アメリカに日本の食文化を理解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すべてを文化相對主義に依存するのではなく、西洋人と感心する立派な日本の文化を確認させ、鯨を食べる日本の食文化も守るべきことであると主張するのである。さらに、鯨とは日本の伝統文化と固く結ばれているので、立派な日本の伝統文化を守るためにも捕鯨業は続くべきだということであろう。

三つ、このように自分の文化を續けて存續させるためには、捕鯨主義を主張しているアメリカに対して、彼らの主張が間違った場合は「間違った」あるいは「No」といえる自信感と勇氣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キーワード：反捕鯨主義、文化的な摩擦、文化帝國主義、自民族中心主義、
人種差別、文化相對主義 異文化、異民族、西歐の優越主義

투 고 : 2004. 5.
31
1차 심사 : 2004. 6.
12
2차 심사 : 2004. 7.
3

住 所 :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번지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電 話 : 055-249-2342
E-mail : j1957y@kyungnam.ac.kr

K C I